

설계는 일괄로 추진하고 시공은 일부 분리발주(?) 과충의 이상한 턴키발주 ‘반려’

조달청, “법 규정 어긋나고 편법 난립 우려” 재검토 요청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기존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제도의 틀을 벗어난 발주가 조달청에 의해 원점으로 돌아왔다. 11일 조달청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턴키로 발주 요청한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 건립공사’를 재검토해달라며 반려했다고 밝혔다. 과충이 약 420억원을 투입해 진행되는 이번 공사는 기존 과학기술인 복지콤플렉스를 철거하고 지하4층~지상 10층까지 신축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그러나 이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되면서도, 기존 턴키공사와 발주방식이 크게 달라 조달청이 최종적으로 반려결정을 내렸다.

과충은 원점에서 발주방식을 다시 고심해야 할 처지가 됐다. 이번 공사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턴키로 진행되고 있으며, 전기·통신·소방 등의 설계를 일괄로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공사발주를 요청하면서 통신공사는 분리발주키로 했다. 이에 조달청은 설계와 시공을 일괄로 시행하는 턴키방식의 공사에서 설계는 일괄로, 시공은 분리해 발주하는 것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범주를 벗어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조 제1항 5호에서 정의하는 일괄입찰에도 맞지 않

다는 게 조달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과충이 현재대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설계까지 용역을 통해 따로 시행한 뒤 분리발주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턴키를 포기하는 방향이 낫다는 얘기다. 발주를 원점에서 다시 고심해야 할 과충은 우선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등 관련 정부부처에 계약방법 타당성과 관련해 질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회신에 따라 과충이 시행한 입찰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다시 발주 요청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윤대원 기자 ydw@

그동안 다양한 턴키 심의에 참여했던 한 교수는 “턴키발주에서 특정 공종만 분리발주한 사례는 없다”며 “전기·통신은 법으로 분리발주를 하거나 정해진 만큼 이를 지켜야 중소기업 보호하고 전문영역을 육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달청 관계자는 “일괄입찰이라는 개념과 시공을 함께 한다는 것인데, 일부에서만 이를 따로 분리발주한다는 건 법에서 정한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며 “이를 허용할 경우 앞으로 턴키를 이용한 편법이 난립할 수 있기 때문에 과충 측에 재검토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대원 기자 ydw@



국회 4차 산업혁명 특위 전체회의 참석하 **홍종학-백운규-최종구**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종학**(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4차 산업혁명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한 **홍종학**(왼쪽부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회장이 자리에 앉아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업무보고가 진행됐다.

진퇴양난에 빠진 해외자원개발사업

자원개발 해야 하는데 자원 3사 손실 갈수록 커져

해외자원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자원개발을 지속해야 하지만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가스공사 등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나선 공기업들의 재무여건은 갈수록 안 좋아져 정부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관련기사 5면** 산업부에 따르면 이들 3개 공사는 총 170개 사업에 43조5000억원을 투자했지만, 2017년 6월 기준 회수는 16조6000억원에 그쳐 회수율이 38%에 그쳤다. 현재까지 확정된 손실액만도 13조6000억원에 달해 투자비의 30%를 상회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광물공사는 가장 상황이 심각해 자본잠식 상태이며, 부채비율도 2015년 6905%로 집계된 이후 지금은 계산할 수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원 없이는 독자 회생이 불가능한 상태.

석유공사도 최근 7년간 (2011~2017) 모두 손실을 기록했으며, 7년간의 손실 합계가 무려 9조6565억원에 이른다. 특히 2015년에만 4조 50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 그나마 아직 자본잠식에는 이르지 않은 게 다행이다. 자본잠식에 이른 광물공사의 경우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에서 자본금을 2조원에서 3조원으로 늘리는 한국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부채를 늘려 5월 만기인 금융 부채를 지불하고 자본 잠식에서 벗어나려던 광물공사의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공기업도 실력이 없거나 경영을 잘못하면 문을 닫을 수 있다는 경고이자 자원외교 실패를 MB정권의 적폐로 보는 현 정부의 부정적인 인식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물공사는 5월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만간 광물공사지원법 개정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며,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극복한다는 방침이다. 민일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광물공사가 회사채 발행에 실패한다면 광물자원공사는 국내 공기업 중 처음으로 파산하게 된다. 산업부도 상황이 다급한 건 마찬가지다. 산업부는 지난해 11월 ‘해외자원개발 TF’를 구성해 자원 3개사의 해외자원개발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사업 정리, 중장기 재무관리와 조직 슬림화 등 구조조정 방안을 수립 중이다.

해외자원개발 TF는 부실 의혹이 큰 프로젝트 위주로 현장 실사를 통해 지분매각과 사업 정리 등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또 석유공사와 가스공사, 광물자원공사와 석탄공사 등의 공기업 통합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정형석 기자 azar76@

“스마트스틱공법 현장 적용성 면밀히 검토”

23일 대전시 일원서 공사용 개폐기 작업 시연 예정

한전과 전기공사업체가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을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한국전력(사장 직무대행 김시호)과 한국전기공사협회(회장 류재선)는 오는 23일 대전광역시 일원에서 스마트스틱(Smart Stick)을 배전공사 현장에서 직접 사용해 보는 간접활선공법 시연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시연회에서는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공사용 개폐기 공법을 수행해 볼 예정이다. 이날 시연은 가지지 크리트와 개폐기는 먼저 설치해 둔 상태에서 ▲바이패스케이블 클램프 체결 및 분리 ▲절퍼션 절단 ▲피복 ▲슬리브 압축 ▲슬리브 커버 취부 ▲테이핑 등 6개 공정을 확인하는 순으로 진행

된다. 한전의 배전전기원과 시공업체 현장근로자가 각각 시연에 참여해 둘 사이의 작업 시간과 숙련도, 공정차이 등도 비교해 볼 예정이다. 전기공사협회 관계자는 “이날 시연회를 통해 스마트스틱을 이용한 간접활선공법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은 물론, 공법의 현장 적용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볼 것”이라며 “현장 근로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작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제안하는 등 안전과 업계간 의견을 공유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정훈 기자 jahn@

배전분야 전력기자재 산업발전 포럼
 2018년 2월 2일(금) 선착순 접수중

ISO 9001인증
(주)서울분전반

- 소량주문 환영
- 제작기일 3일
- 품질 제일주의

T) 02-2625-4828
 F) 02-2625-4829

????

- ▶ 한국전기문화대상 ▶ 훈장, 포장, 대통령·국무총리 표창
-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고용노동부 장관·국토교통부 장관·중소벤처기업부 장관·조달청장 표창
- ▶ 서울특별시시장 표창 ▶ 한국전력공사장 표창
-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표창

????

- 접수기한 : 2018년 1월 31일(수)
- 제출서류 : 제출 양식 및 서류는 당사 홈페이지 (www.electimes.com)의 '전기신문 사고'에서 다운로드
- **포상 후보자 추천 요청공문은 별도 발송하지 않음 (공고문으로 대체)**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문의: 02-2168-1361~2

???? (??)

- 2018년 7월 10일(화)

sujoin 만능수자인

미래의 도전은 에너지다*

☀️ **국내최대 태양광 100MW, ESS 255MWh 전기사업허가 취득**
 ☀️ **인간중심 에너지산업 기반 스마트시티 조성 (서남해안기업도시)**

보성그룹 가족사 보성, 안양, 보성산업, 서남해안기업도시개발, 광양그린에너지, 광양지아이, 코리아에너지 (국제양민, LPG유통, 펠릿유통), 광양양육복합에너지허브, 파인윌스컨트리클럽, 파인비치골프링크스, 해원에스티, 해원엔에스씨

*보성그룹은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를 기원합니다

2018년 상반기 보성그룹 임원 및 경력사원 공개채용

모집회사	모집분야	자격요건
한양	태양광사업개발	태양광 사업개발(인사설계, 전기사업허가) 경험자 사업성립도 및 PF 경험자·발전회사공공, 민간 출신 사업개발 경험자 우대 근무지: 서울 / 광주
	태양광기술 (EPC포함)	태양광 / ESS 발전설비 설계 및 시스템 구축 경험자 태양광 / ESS 발전 설비 기자재 및 배터리 구매 경험자 태양광 / ESS 발전설비 현장 시공 경험자 사업추진단계별 관련 인원이 출신 경험자
	LNG발전	LNG 복합발전 전기사업허가 추진 경험자 사업성립도 및 PF 경험자 · 발전회사공공, 민간 출신 업무 경험자 우대
에너지유통	LNG허브	해의 공급사 및 수요자 발굴 / 영업 가능자 사업성립도 및 PF 경험자 · 발전회사공공, 민간 출신 업무 경험자 우대
	초고층	초고층(50층 이상) Core 선행공사, 공무 / 공정관리 경험자 철골구조 5,000톤 이상 공사 경험자 · LH 및 공공공사 경험 우대
서남해안 기업도시 개발	건축/설비/전기	공동주택/일반건축 · 공사 / 공무 / 건축설비 / 전기시공 경험자 (5년이상)
	에너지신사업	에너지신사업 (BE,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관련 전기 전문가
보성	마케팅	대규모 개발사업 투자유치 경험자(관련기관 네트워크 보유) (원형·신규토지 및 주택상용 개발 전문가 / 대규모 토지 및 주택개발 전문가) 광고·홍보 전문 마케팅 기획, (Branding 등) 실무자 영어 또는 중국어 능통자 우대
	조경 설계/관리	조경 관리 실무 경험자(건축지 내 조경 계획 / 설계 / 시공 관련) 조경 설계 가능자(관련자격 소지), 대규모 개발 경험자 우대 지형 근무 가능자
보성산업	회계사	회계법인 10년 이상 근무자 · 그룹 자회사 경력자 우대
	자산관리	상업용 부동산 MO개발 및 테넌트 유치 / 관리 경험자 오피스 PM 및 LM 경험자
보성산업	단지개발	도시개발사업, 관공단지 / 유원지 개발 경험자
	회계/세무	회계/세무 실무사
	회계/세무	회계/세무
RM	건설사 회계업무 3년 이상 경험자 개발 및 건설업 RM, 사업관리 경험자	

■ 그룹 공통사항
 - 직무관련 자격증 소지자 우대 (신재생에너지 / 기계 / 전기 / 건축 등)
 - 공인어학성적 (제출 마감일 기준 2년 이내) 우수자, 외국어 능통자 우대
 - 서류전형 제출서류는 PDF 파일로 첨부 제출
 - 국가등록 장애인 및 국가보훈 대상자는 관련법 및 내부규정에 의거하여 우대
 - 입사지원서에 허위자재가 있거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일 경우 입사를 취소함
 - 병역필 또는 면제자로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접수기간 및 지원방법
 - 접수기간 : 2018.01.24.(수) 24:00까지 - 온라인 지원 : 인재를 (http://recruit.hycorp.co.kr/)

■ 전형절차 및 제출서류
 - 서류전형 → 면접 (1차, 2차) → 신체검사 → 최종합격
 - 입사지원서, 경력기술서, 자기소개서 * 전형 절차에 따라 합격자 개별 안내

■ 채용관련 문의사항
 - Tel : 02-721-8702(발전·에너지), 8754(건축), 8961(서남해안기업도시), 8679(보성), 8969(보성산업)
 - E-mail : recruit@hycorp.co.kr

보성그룹